



가톨릭 성령 은사적 쇄신 미주 한인 봉사 위원회 Korean Service Committee of the CCR in the Americas

東 · 西에 말씀과 치유의 은총 가득

7월 동부, 8월 남가주 성령 대회에 뜨거운 성령의 열기

동부 성령대회가 지난 7월 16일과 17일에, 남가주 성령 대회가 8월 13일과 14일에 각각 개최돼 동부와 서부 지역에 성령계 대한 감사와 찬미 예수님을 외치는 소리가 가득했다. 남가주에서 18회 째 맞는 2005 성령대회는 LA 테크니칼 칼리지 대극장에서 “예, 믿습니다. 주님”이라는 주제로, 뉴저지 버겐 카운티 테크니칼 스쿨 대강당에서 열린 동부 성령대회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를 주제로 했다.

동부 대회에는 인천 교구장 최기산 주교, 예수 고난회 한국 관구장 김 준수 신부, 서울 대교구 성령 쇄신 지도 이 재을 신부의 강의와 함께 약 2천 명의 교우가 참여했다. 남가주 대회에는 서울 대교구 김 운회 보좌 주교, 원주 교구 김영진 신부, LA 박상대 신부, 세계적인 치유 은사자로 알려진 인도의 빈세트회 소속 어거스틴 문다갓 신부등과 약 3천명의 교우들이 함께했다.

이번 동부 성령 대회는 그 동안 동북부 봉사회가 주관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동남부, 동중부 봉사회가 참여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남가주 성령 대회에는 작은 예수회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자들이 율동과 찬미를 선보였다. 또한 청년 성령쇄신 봉사회원들도 참여해 젊은 율동과 체험담을 들려 주었다.

남가주 대회 치유 예절이 끝난 후에는 치유를 체험한 수십명의 사람들이 무대위로 올라 왔지만 시간 제한으로 일일이 체험담을 듣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대회 진행은 물론 타 지방에서 온 참석자들의 숙식과 교통 안내 등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성령대회 주최측의 모습은 양대 대회가 동부와 서부 지역만의 대회가 아닌 미주 전체 교우들의 축제임을 실감케 했다.

2005 쇄신 세미나 일정

9/2-5	성령 안의 삶 세미나; 디트로이트 성령 기도회; 천 안드레아(734-482-5796)
10/4-14	스페인 탐방과 파티마, 루르드르 성모 발현지 순례; KSC
10/20-23	봉사자 세미나; KSC, 켈거리 성령 기도회; 성 성실(403-280-5279)
10/28-30	성령 안의 삶 세미나; 클리 블랜드 기도회; 신 정자 요안나(440-821-8383)
11/4-6	봉사자 세미나; KSC; 서북미 봉사회; 이 용명 안드레아(425-239-8575)
11/11-13	2005 National Leaders Conference; NSC; (이 은경 줄리아253-223-8775)
12/27-30	성령 안의 삶 세미나; 중남부 봉사회; 김 재문(832-640-1404)

미주 한인 천주교 성령가족을 위한 격 월간지
 130 67th Ave Ct E, Fife, WA 98424
 Tel.Fax. (253)663-4407
 news@kscusa.org http://kscusa.org



회장 Corner 이 창재 부제

복음선교를 위하여 최 전선에서 활약하고 계신 일선 기도회 회원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제가 조석으로 바치는 매일 기도를 아래에 소개합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매일기도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은총으로 내 삶은 날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내 삶은 하루 하루 건강한 육신, 건전한 정신, 그리고 순결한 영혼으로 수 놓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그랬듯이, 오늘보다 내일 나는 더 원숙한 삶을 향해 전진합니다. 지난날 한때 불운하게 생각되던 어려운 일이 마침내 좋은 결과로 반전되었듯이 내 삶의 시련은 마침내 축복으로 바뀝니다.

나의 가족은 하느님이 주신 내 인생의 친구요 동반자며 분신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의 응원단입니다. 우리가족 모두 건강하고 활기차며 우리 서로 믿고 사랑합니다. 그들과 더불어 나는 날마다 힘차게 새 소망을 살아 갑니다.

나는 매 끼니 주님이 주신 식사를 하기 위하여 식탁에 앉아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왕성한 식욕으로 음식을 먹으며 영양유지에 충분한 분량을 규칙적으로 섭취합니다. 영양섭취에 힘입어 새로운 세포는 완벽하게 자라나며, 자라난 세포는 내 몸의 손상된 조직이나 낡은 기관을 완전하게 고쳐줍니다. 내 소화능력과 배출기능은 하루 종일 온전히 작동합니다.

나는 일상생활을 통해 매일 주님의 축복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으로 충전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현존 안에서 성장과 발전을 매일 확인하는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내 기쁨은 주변에도 전파되어서 그들에게도 긍정적 동기를 부여합니다.

나는 일터에서도 상사와 동료들 그리고 고객들과 더불어 즐겁게 일합니다. 그들은 내 장점의 협력자요, 약점의 보완자며, 기회포착의 조언자요, 위기 예방에 꼭 필요한 비판자입니다. 나는 그들의 선한 의지를 믿으며 그들을 성공의 동반자로 삼고자 합니다.

나는 우리 집에 허락하신 재물이 우리 가족을 위해 부족함이 없으며, 오늘 그랬듯이 내일도 필요한 만큼 주시고, 이렇게 노후까지도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 마음은 주님의 현존으로 항상 평화롭고 고요합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측은지심'을 느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주님이 바라시는 사회발전과 인류평화를 위하여 기여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늘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자부심을 갖고 평온하고 밝은 마음을 누립니다.

나는 매일 이 기도를 바치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이 기도는 내 심장의 고동과 함께 주님께 봉헌되고, 하느님의 축복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듭니다. 진정으로 내 삶은 매 순간, 그리고 구석까지 하느님의 현존과 축복으로 점점 더 생기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밤이 되면 원하는 시각에 주님과 함께 침상에 들며, 주님의 품속에서 밤새 깊고 편안한 잠을 이룹니다. 눈을 뜨자마자 나는 주님의 현존을 찬미하게 되며 내몸은 어느새 활기로 넘쳐 있습니다. 나는 매일 매일 매 순간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휴스턴 성장 세미나 盛了

YKCT 홍보부

중남부 성령 쇄신 봉사자 협의회(CRSC-SC/YKCT)에서 주최한 제1차 성령안의 새생활 성장 세미나가 '야훼를 기다려라, 마음 굳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야훼를 기다려라(시편27,14)'라는 주제로, 지난 5월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 동안 휴스턴 Holy Name Retreat Center에서 열렸다. 이미 성령 안의 삶 기초 세미나를 다녀온 중남부 지역 청장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피정에는 Texas 지역과 타 지방에서 온 총 53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하였다.

중남부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이번 성장 세미나는, 예수님의 진 생애를 성서와 함께 살펴본 다섯번의 강의와 성령 안의 새 삶을 살아가면서 맞게 되는 어려움들을 주제로 한 강의 및 체험담, 기도회와 미사로 이루어졌으며 그 외의 시간은 참가자들의 묵상과 면담을 위해 자율에 맡겨졌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강의는 봉사회의 지도 사제인 정건석 프란치스코 신부(오스틴 본당)가, 성령 안의 새 삶에 대한 체험담 및 강의는 LA에서 온 두 분의 봉사자가 하였는데, 이 강의를 통해 많은 참가자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또한 성령안의 새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알아두어야 할 구체적인 문제들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매일 저녁 이루어진 기도회를 통해 좀 더 성숙한 기도회를 체험해 볼 수 있었으며, 자율적인 면담을 통해 자신이 풀어야 할 문제들을 더욱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제 매년 12월 기초 성령 세미나와 더불어 여름 성장 세미나를 시작한 중남부 봉사자 협의회는 밝은 앞날을 기대해본다.

송두리째 변한 내 평생의 가치관

동부 성령대회 신앙체험

플로리다 올랜드 성당, 심 현숙 에밀리아

“야훼여, 당신께서는 나를 환히 아십니다. 내가 앉아도 아시고 서 있어도 아십니다. 멀리 있어도 당신은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걸어 갈때나 누었을 때나 환히 아시고, 내 모든 행실을 당신은 매양 아십니다. 입을 벌리기도 전에 무슨 소리 할지, 야훼께서는 다 아십니다. 당신 생각을 벗어나 어디로 가리이까? 당신 앞을 떠나 어디로 도망치리이까? 지하에 가서 자리 깔고 누워도 거기에도 계시며, 새벽을 날개 붙잡고 동녘에 가도,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 보아도 거기에서도 당신 손은 나를 인도하시고 그 오른손이 나를 꼭 붙드십니다.”(시편 139.2-10)

어느덧 제 나이 50이 가까운 이때, 주님께서 저의 삶 안에서 어떻게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가난한 농부의 7 남매 중 다섯번 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9살 되던 해에 아버지는 오랜 질병으로 재산을 탕진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죽을 끓여 먹일 망정 남에게 손을 벌리는 일이 없어서 많이 배가 고팠던 기억이 납니다. 커서 민주주의를 멋지게 실현하는 정치인이 되어보겠다는 야망을 가졌던 저는 가난으로 인해 그 꿈을 접어야 되었고 큰언니의 희생으로 간신히 서울의 일류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정의감으로 불타던 고등학교 시절엔 명동 성당을 지나서, 영락 교회를 다녔는데 가끔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을 외치며 데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피한 곳은 바로 명동성당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른 말을 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치는 분들이 신부님들 임을 알면서 ‘성당이라는 곳은 뭔가 하느님의 정의를 위해 바른 일을 하는 곳이다’ 라는 어렴풋이 좋은 감정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열심히 돈을 벌고 살았습니다. 남보다 빠르게 집도 장만하고 안정된 사업체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은 많은 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제가 다니고 싶었던 대학 공부도 시작할 수 있었고 한국에선 상상도 못할 골프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물질의 풍요로움은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의 바벨탑을 높이 높이 쌓아 올리게 했습니다.

그 즈음 삶의 모범을 보이던 이웃이 성당에 다님을 알고 은근히 성당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번도 성당으로 초대하거나 전교를 하

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명령하셨는데요. 그러던 중 개신교 나가던 제가 잠시 냉담하고 있음을 알고 저를 천주교로 인도했습니다.

처음엔 주일에 문을 여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만 성당에 나와 예비자 교리 반에 들었습니다. 2,3주 째 교리를 받던 도중 저는 누군가가 제 등을 쇠망치로 힘껏 치는 듯 하는 통증을 느끼며 쓰러졌습니다. 온통 배가 개스로 가득 차고 오장육부가 찢르듯이 아파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서 온갖 조사를 다 하여도 아무런 병명과 원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도 없고 몸은 점점 야위어가고 몸의 한쪽은 마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잠을 잘수가 없어서 몇 날 며칠을 지새웠습니다. 또다시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가도 아무런 병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프고 괴로운 긴 밤마다 “주님 나를 벌하지 말아주소서. 당신의 자비로 살려 주소서. 저를 살려 주신다면 이제 당신만을 위해 살겠어요. 그 동안 제가 너무 잘못 살았어요. 나는 내가 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는데 당신이 이 목숨 앗아가려 하니 저는 당신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가하군요. 다시 한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고 울어댔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천주교를 마리아 교회라고 아유했던 내가 목주 알까지 돌리면서 성모님한테 까지도 도와 달라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의 잠자리는 고통의 눈물 바다가 되었고 아프고 지쳐서 울음마저 나오지 않게 되었을 때 죽음이 서서히 다가옴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부르심은 저로 하여금 욕기를 띄게 하셨습니다.

“벌거벗고 세상에 태어난 몸 알몸으로 돌아 가리라, 야훼께서 주셨던 것, 야훼께서 도로 가져가시니 다만 야훼를 찬양할지라” “다만 야훼를 찬양할 지어라”에 눈이 멈춰지면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픔 속에서 까지도 주님을 찬양한 욕에게 기적이 일어났음을 깨달은 저는 20여 년 동안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했지 진정으로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이라도 진심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어보았는지 눈물로 콧물로 통회를 했습니다. 또한 주님은 저의 아픔을 통해 저뿐만 아니라 남편과 자식들까지 몽땅 부르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남편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진정으로 하느님을 믿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가정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만 주일엔 가게 문을 닫아요. 그리고 나를 차에 싣고 성당에 나가요. 아이들과 온 식구가 성당에 나가요. 성당을 나가면 왠지 내가 다시 살 것 같아요” 남편은 두말 하지 않고 바로 가게 문을 닫고 성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의 기도도 달라졌습니다. 무조건 살려 주세요, 살려주신다면 이렇게 살아보겠다는 기도에서 “그러므로 내 말을 잘 들어 두어라.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다 될 것이다” (마르코 11,24)의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저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저를 낮게 해주시리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 몸은 하루하루, 정말 느낄 정도로 빠르게 회복이 되어갔습니다. 누군가의 다사로운 손길이 새털처럼 가볍게 나를 치유하고 계시는 구나 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비자 교리시간, 남편도 “바로 이거야 이거” 하며 교리를 잘 받아 들였고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성체에 관한 비디오 특히 성체가 실제로 살로 변하는 비디오를 보던 순간에 남편은 흐르는 눈물을 저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성체 안에 실제로 살아계시며 저를 아니 저의 가족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고대하시며 매를 드신 주님께 감사의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매 교리시간에 임하였고 하루빨리 주님 모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94년 성탄절에 우리 네 가족은 모두 영세를 받고 첫 영성체를 하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개신교에서는 1달에 한번 성체와 성혈을 모시는 시간이 있었는데 유독 저만 모시질 않았습니다. 의아해서 목사님은 저에게 물으셨지요. 왜 성체를 모시지 않느냐고. “목사님, 저는 이 빵과 술이 주님의 몸이라는 확신이 없어서요”,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있으니 모셔라”라는 목사님의 권유도 뿌리치고 고집을 부리던 제가 이렇게 주님이 살아계셔서 저에게 오심을 느끼며 감격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성체를 모실 때 마다 저는 기도 했습니다. 제발 주님 저한테 오시면 이 성체 크기만큼만이라도 저를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하게 해 주십시오.

살아 계시는 주님을 모시는 미사는 저에게 활력을 되 돌려 주었습니다. 세상의 무엇보다도 기쁨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40여년 동안 살아 왔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했던 황금 만능주의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몇년 전 남편이 새로 비즈니스를 할 돈을 저 모르게 남에게 빌려주어 송두리째 잃어 버렸을 때에도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과 원망 대신에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지혜를 간구하는 믿음과 하느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나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완벽주의 성격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의 실수와 남의 실수까지 웃어 넘길 수 있는 넓은 아량이 생겼지요. 그리고 나의 자녀는 항상 1,2등을 해야 되며 누구보다

도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데로 키워져야 된다고 아이들에게 무척이나 무섭고 엄한 엄마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갈 때 나의 꿈을 자식들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이기심과 열등감, 자존심등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시간당 6불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변호사도 의사도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며 아이들에게 사랑과 자유로움을 주었고, 그들은 더욱더 인간 다운 인간으로 성장되어갔습니다.

세번째,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지체로서 서까래가 부실하면 서까래가 되어주고 벽돌 하나가 부수어지면 그 자리를 메꾸려고 애쓰며 주님이 아파하는 부분이 어떤 곳인가를 찾아 열정적으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개신교 식의 열정적인 봉사가 텃세 심한 구교신자들에게 곱게 받아 들이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교우들과 부딪히고 상처받고 다치는 부분도 많았지만, 늘 똑같은 모습으로 봉사하며 포도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 까지도 주님이 나에게 등글고 원만한 성격, 겸손한 성격으로 다듬으시려는 하나의 계획안에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방어 없이 온몸을 의지하며 살아온 나의 삶은 불안과 초조에서 해방되었고 항상 남보다 나아지려고 하는 열등감에서 해방되어 기쁘고 건강하며, 살아서 하느님 나라를 맛보는 하루 하루 살맛 나는 삶이 되었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사랑의 매를 드시고 당신의 뜻이 있어 가톨릭교회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느님!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많은 제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몸을 더 많이, 더 자주 모시어 하루빨리 주님을 닮기 위해 오늘도 매일 미사에 임합니다.

매일 매일 새롭게 재창조 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닮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 당신의 영광만을 드리우며 살립니다. 살아계시어 나의 삶을 주관 하시는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

KSC 2006 과달루페 성모성지 순례 복음 선교 수련 회원 모집

일정: 2006년 2월 22일(수) - 26일(일) 4박 5일
집합시간: 2월 22일(수) 4:30pm, Mexico City 국제공항
출발시간: 2월 26일(일) 2:00pm 이후, MEX 국제공항
회비: \$450 (숙식과 교통비 포함), Payable to KSC
비행기표: 항공료는 별도이며, 각자 구입.
신청서 접수: KSC 커뮤니케이션 센터,
 130 67th Ave. Ct. E., Fife, WA 98424
항공사: (문의) 이은경 Julia Lee,
 253-223-8775 Fax: 253-663-4407
마감: 2006년 2월 2일 (선착순 40명)